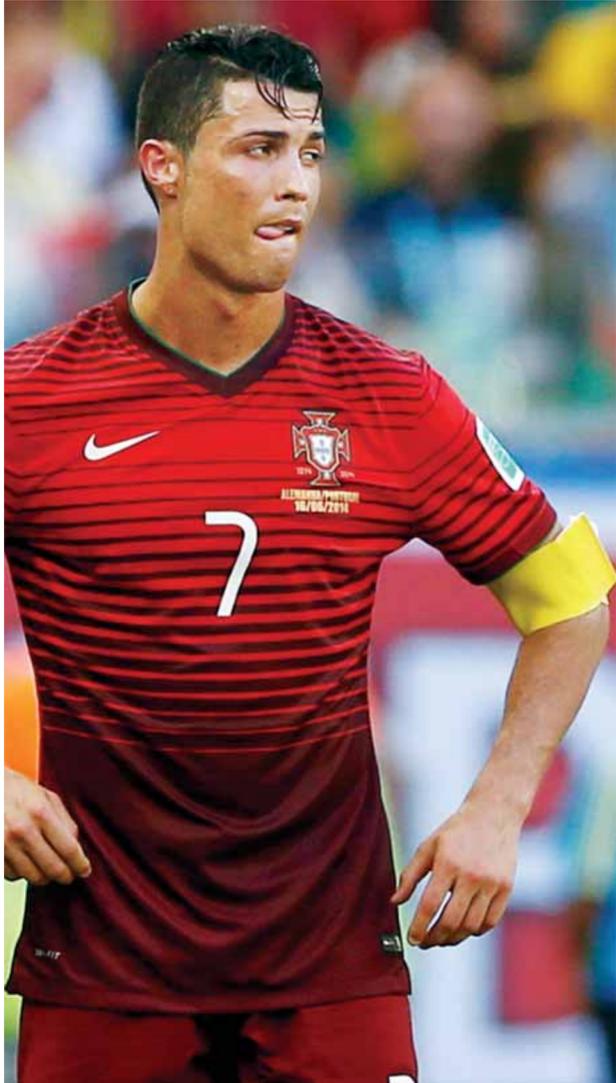


# 페페 박치기 퇴장... 호날두 “울고 싶어...”



‘멘붕’ 호날두 17일(한국시각) 브라질월드컵 본선 G조 1차전 독일-포르투갈전에서 포르투갈 수비수 페페가 독일 공격수 토마스 뮐러에게 다가 박치기를 하고 있다(오른쪽). 이를 지켜본 세계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가 어이 없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득점왕, 혼돈의 레이스

뮐러 3골·네이마르등 4명 2골 각축

2014 브라질 월드컵 초반 골 잔치가 벌어졌다. 특히 간판 골잡이들이 첫 경기에서부터 이름값을 톡톡히 하면서 대회 최다 득점자가 받을 ‘골든 부트’(Golden Boot)가 누구 품에 안길지 벌써 관심을 끈다.

이번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14경기가 끝난 17일(이하 한국시각)까지 총 44골이 터졌다. 경기당 평균 3.14골이다.

월드컵에서 경기당 평균 득점은 1994년 미국 대회에서 2.71골을 기록한 뒤로는 매 대회 감소. 4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는 2.27골까지 떨어졌다. 물론 아직 대회 초반이고 경기에서 지면 바로 탈락하는 16강 토너먼트부터는 수비에 치중하는 경기 운영으로 득점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958년 스웨덴 대회(경기당 3.6골) 이후 56년 만에 경기당 평균 3점 이상의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팀의 주축 골잡이들의 득점포가 대회 초반부터 폭발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기대를 키운다.

개최국의 이점까지 안고 득점왕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브라질의 네이마르(바르셀로나)는 크로아티아와 개막전에서 페널티킥 골을 포함한 2골을 터트리 화끈한 득점왕 경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 대회 준우승국인 네덜란드의 로빈 판 페르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리언 로빈(바이에른 뮌헨)이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을 상대로 나란히 두 골씩 몰아넣고 바로 득점왕 레이스에 가세했다. 이어 프랑스의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도 온두라스와 1차전에서 두 골을 넣었다. 17일에는 남아공 대회 득점왕(5골)이자 최우수 영플레이어로도 선정된 독일의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가 득점왕 2연패의 시동을 걸었다. 뮐러는 포르투갈전에서 이번 대회 1호이자 역대 월드컵에서 49번째인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단숨에 득점 선두로 나섰다.

남아공 대회에서는 무득점에 그쳐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라는 수식어를 무색하게 했던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산뜻하게 첫 결승을 땀다. 자국이 모두 우승 후보로 손색없는 팀들이어서 이들은 남은 일정에서도 골 퍼레이드를 이어갈 여지는 크다.

역대 월드컵 단일 대회 최다 득점자는 1958년 스웨덴 대회에서 13골을 넣은 프랑스의 쥐스트 폰텐느다. 1978년 아르헨티나 대회부터 1998년 프랑스 대회까지는 총 6개 대회 연속 득점왕이 6골을 기록했다.

‘마(魔)의 박’처럼 여겨졌던 ‘6골 득점왕’ 공식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호나우두가 8골을 넣으면서 깨졌다. 2006년부터는 두 대회 연속 5골에서 득점왕이 가려졌다. /연합뉴스

박치기로 포르투갈의 월드컵을 망친 수비수 페페(레알 마드리드)는 할 말이 없었다.

페페는 17일(한국시각) 독일과의 2014년 브라질월드컵 본선 G조 1차전에서 퇴장당해 포르투갈의 0-4 완패의 장본인이 됐다.

전반에 독일 공격수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의 일곱을 손으로 쳐 쓰러뜨리고서 다시 머리를 머리로 받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았다. 페페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그라운드를 떠났다.

파울루 벤투 포르투갈 감독은 “심판 판정에 만족하지 않지만 페페의 행동은 패배를 부른 치명적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를 보러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축구 팬들은 페페가 우둔한 행동으로 월드컵을 망쳤다고 한탄했다. 경기장에서는 뮐러가 반칙을 당하자 과장된 몸짓과 도발적인 말로 페페의 박치기를 유도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은 이탈리아와의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상대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가 가족을 모두

### 포르투갈, 독일에 0-4 완패

### 페페 2경기 정지...16강 ‘가물’

### 원조 악동 조이 바튼 ‘세계 최고 광기’

하차 참지 못하고 박치기를 했다가 퇴장당한 적이 있다.

그러나 뮐러는 경기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발 가능성을 부인했다. 뮐러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손에 맞아서 넘어졌는데 페페가 다가와 머리로 받았고 심판이 레드카드를 꺼냈다”고 말했다.

페페는 경기력이 수준급이지만 돌출 행동 때문에 종종 파문을 일으키는 중량 수비수다. 그는 2011-2012시즌 스페인 코파델레이(국왕배) 8강전에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손등을 일부러 밟고 지나가 심자포화를 맞았다. 그전에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경기에서 상대의

다리와 몸통을 고의로 걸어서 중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다.

거칠기로 악명이 높은 다른 수비수에게도 페페의 이날 돌출행동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조이 바튼(퀸스파크 레인저스)은 자기 트위터를 통해 “한때 광기 어린 어둠의 기술을 구사하던 달인으로서 전문적으로 감정할 때 페페의 행동은 세계 정상급, 최고의 광기”라고 말했다.

포르투갈은 왼쪽 풀백 파비우 코엔트라(레알 마드리드), 최전방 공격수 우고 알메이다(베식타스)가 이날 다쳐서 교체됐다.

벤투 감독은 “코엔트라와 알메이다가 언제 회복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페페까지 중징계로 최소 2경기 이상 출전정지를 받을 것으로 보여 16강 진출은커녕 미국, 가나와의 남은 조별리그에서 참패를 피하는 게 급선무가 됐다. /연합뉴스

### 가나에 2-1 승...2006·2010년 패 설욕

미국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상대였을 것이다. 미국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마주친 상대는 하필이면 가나였다.

미국과 가나의 월드컵 인연은 짙다. 미국은 2006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2010년에는 16강에서 가나와 만나 모두 1-2로 패했다. 미국의 월드컵 도전 역사에서 두 차례나 발목을 잡은 가나 탓에 미국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서둘러 짐을 싸야 했다.

이번에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만났다. 2010년 16강 대결을 포함하면 두 경기 연속으로 마주쳤다. 게다가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인 독일, 포르투갈과 같은 조에 묶인 양팀으로서만은 반드시 승점 3을 쟁취해야 하는 경기였다.

미국은 가나와의 외나무다리 대결에서 이번에는 승리를 헌납하지 않았다. 미국은 17일(한국시각) 브라질 나타우 두나스 경기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가나

를 2-1로 제압, 두 차례의 1-2 패배를 그대로 되돌려쳤다. 독일 출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략이 돋보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평가전에서 최종 상대로 나이지리아를 선택했다. 같은 아프리카 대륙의 나이지리아를 통해 가나전 승리 해법을 모색한 것이다.

나이지리아와의 최종 평가전에서 2-1로 승리한 자신감은 가나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미국의 주장 클린트 뎀프시(시애틀)가 경기 시작 1분이 채 안 된 이른 시간에 개인 전술로 골을 터트리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은 배가됐다.

반면 최근 경기에서 득점 가뭄을 드러낸 가나는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내주고 쫓겼다. 가나는 우리나라와의 최종 평가전에서 4-0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전 9경기에서 단 5득점에 그쳤다. 최근 평가전인 몬테네그로와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는 두 경기 연속 0-1 패배를 당했다.

가나에 당한 아픔을 설욕한 미국은 한층 커진 자신감으로 23일 포르투갈을 상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가나는 그나마 해볼 만한 상대로 생각했던 미국에 패하면서 22일 독일전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연합뉴스



파비안 존슨